



답답한 광주FC '미쳐야 산다'

광주FC가 6월 2일 FC서울과의 K리그1 2024 16라운드 원정경기를 통해 승점 사냥에 나선다. 승리가 절실한 이정호 감독은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강조했다.

<광주FC 제공>



최근 3경기 '광주다운 공세'에도 1무2패 그쳐 내달 2일 서울과 K리그1 16라운드 원정 경기 이정호 감독 "위기 타파 위해 정신 재무장해야"

답답한 광주FC, 미쳐야 산다. 광주FC가 6월 2일 오후 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을 상대로 K리그1 2024 16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전북현대, 인천유나이티드, 포항스틸러스를 상대한 3연전에서 1무2패에 그쳤다. 세 경기에서 승점 1점을 얻으면서 고전했지만 세부 지표를 보면 광주의 공세가 때때로 세 전북전에서 62%의 점유율을 가져온 광주는 18

개의 슈팅을 퍼부었고 이 중 11개는 유효슈팅으로 기록됐다. 전북은 슈팅 6개(유효슈팅 4개)를 남겼다. 팽팽한 공방전이 전개된 인천전에서는 광주가 59%의 점유율을 장식했고, 두 팀은 나란히 11개의 슈팅을 선보였다. 유효슈팅은 광주가 7개로 3개의 인천에 앞섰다. 광주는 포항전에서도 상대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점하면서 67%의 점유율을 가져갔다. 슈팅수도 11개를 기록하면서 3개를 기록한 포항에 앞섰다.

하지만 광주는 세 경기에서 단 1골밖에 넣지 못했다. 상대 골키퍼의 잇단 호수비와 골대 불운이 이어지면서 광주는 광주다운 공세를 펼치고도 승자가 되지 못했다. 3경기에서 1골에 만족한 광주는 인천과의 경기에서는 경기 종료 직전 페널티킥을 허용하는 등 수비에서 고전하면서 5실점을 했다. 골문도 따르지 않고 아쉬운 판정들도 이어지면서 선수들의 마음도 급해지고 있다. 이정호 감독도 지난 26일 포항전 패배 후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선수들이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플레이, 전술 등을 신경 쓰고 경기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독일 속담에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지혜로워진다는 말이 있다.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잘하는 부분은 날카롭게 잡고 닦는 방법밖에 없다"며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

다. 미팅하면서 선수들에게 미쳐야 된다고 그랬다. 나부터 축구에 미쳐보겠다"고 위기 타파를 위한 정신 재무장을 이야기했다. 마음과는 다른 결과와 아쉬운 판정들이 겹치면서 분위기가 침체된 광주는 과감하게 모든 걸 그라운드에 쏟아내겠다는 각오로 서울전을 준비하고 있다. '미친 플레이'와 함께 필요한 것은 안정된 수비다. 광주 수비의 핵으로 떠오른 허을에게 시선이 쏠린다. 허을의 중앙 수비수 전환을 이끈 이정호 감독은 "일취월장하면서 전문 수비수 못지않은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강행군에 지친 정호연을 대신해 중앙 미드필더로 역할을 맡은 '루키' 문민서의 움직임도 중요하다. 익숙한 자리에서 침투 패스 능력이라는 주특기를

살려 골이라는 '결과'를 만들어줘야 한다.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기 위한 이강현, 박태준의 묵직한 중거리 슛도 필요하다. 개인 돌파 능력이 좋은 김한길과 정지용은 '조커'로 활약하면서 상대를 흔들어야 한다. 서울에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출신 '스타 플레이어' 링가드의 움직임을 주의해야 한다. 링가드는 부상 이후 3경기 연속 선발 출장하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몸을 사리지 않은 플레이까지 보여주고 있는 만큼 링가드 봉쇄에 신경 써야 한다. 처음 국가대표에 발탁된 풀백 최준과 서울의 간판스타 기성용도 경계 대상이다. 앞선 무승부와 패배의 아쉬움을 털고 광주가 '자신감'으로 서울 공략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친구야 '타이거즈 V12' 함께 이루자"

KIA서 재회 김도현-변우혁

한화 입단 동기 2022년 이적
'150km 강속구' 김도현
'거침없는 스윙' 변우혁
투타 힘 보태며 활약 눈길

새로운 팀에서 다시 만난 두 친구가 뜨거운 가을을 꿈꾸고 있다. 1위 질주를 하고 있는 KIA는 5월 투타에서 '합'을 더했다.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앞세워 정면 승부를 하고 있는 투수 김도현과 거침없는 스윙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내야수 변우혁이 KIA의 새로운 힘이다. 1위 싸움에 힘을 보태고 있는 두 사람은 알고 보면 2019년 한화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에 뛰어든 입단 동기다. 공교롭게 두 사람은 트레이드를 통해 KIA로 이적했다. 김도현은 2022년 4월 투수 이민우, 외야수 이진영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타이거즈맨이 됐다. 변우혁은 이해 11월 투수 한승혁·장지수와 팀을 맞바꿨다. 트레이드 당시 '군필' 내야수였던 변우혁은 지난해 83경기에 나와 7개의 홈런을 기록하는 등 새 팀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김도현이 지난 2월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두 친구는 그라운드에서 재회하게 됐다. 지난 3일 빨라진 스피드를 앞세운 김도현이 먼저 1군 콜업을 받았고, 12일 더블헤더 특별 엔트리로 잠시 1군에 합류했던 변우혁은 25일 다시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확실한 주전은 아니지만 두 사람은 투타에서 힘을 보태면서 경향을 쌓아가고 있다.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달라진 친구의 모습에 기대감을 보이며, 함께 '가을 무대'에 오르겠다는 각오다. "도현이가 전역하자마자 초밥 먹고 싶다고 해서 사줬는데 15만원이 나왔더라"며 웃은 변우혁은 "군대 다녀와서 구위를 봤는데 예전 그 모습이 아



입단 동기인 KIA 타이거즈의 투수 김도현(왼쪽)과 내야수 변우혁이 선전을 다짐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니었다. 2군에서 같이 연습경기 하면서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다. 5월 되면 바로 올라가겠다고 생각했는데 잘하고 있어서 기뻐한다"고 친구의 활약을 밝혔다. 김도현은 "지난해 우혁이 홈런치는 것을 많이 봤다. 처음 우혁이 봤을 때는 컨택이 약했던 것 같은데 자기 것이 생겼다고 이야기했다. 힘은 좋은데 자기 존도 생기고, 컨택이랑 같이 좋아지면서 충분히 좋은 선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지할 수 있는 친구와 함께 야구를 하는 것도 좋지만 '1위팀'에서 뛰고 있다는 게 두 사람에게 큰 자부심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변우혁은 "지난해 순위 싸움 처음해봤고, 1위 싸움도 처음이다. 2군에서 좋았는데 하던 대로 하려고 한다. 올 때도 최희섭 코치님과 하던 대로 하자고 이야기했다. 하루에 하나씩 치자는 생각으로 불렛으로 하나씩 나가기도 하면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군복무도 마친 만큼 '야구만 하면 된다'는 김도현은 "모든 게 처음이다. 1위 팀인데 이곳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게 좋다. 이 페이스 잘 유지하면서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키움 김휘집 보낸다

NC와 트레이드... 2025 신인드래프트 1·3라운드 지명권 확보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NC 다이노스와 트레이드를 통해 주전 유격수 김휘집(22·사진)을 보내고 2025시즌 신인선수 지명권 2장을 받아냈다. 키움 구단은 30일 "내야수 김휘집을 내주는 대신 2025시즌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와 3라운드 지명권을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키움 구단은 "이번 트레이드는 NC 제안으로 시작됐고, 구단과 선수의 미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구단은 신인 지명권을 활용해 미래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김휘집도 새로운 팀에서 얻는 기회를 발판 삼아 더 성장할 계기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제2의 김하성"으로 기대를 모은 김휘집은 키움이 2021년 1라운드에서 뽑은 대형 내야수 재목이다. 입단 2년 차인 2022년 타율 0.222에 홈런 8개, 36타점으로 가능성을 보여줬고, 작년은 타율



0.249, 8홈런, 51타점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APBC) 대표로 선발돼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번 시즌 김휘집의 타격 성적은 타율 0.230, 5홈런, 25타점이다. 이번 트레이드에서 KBO 역대 최초로 지명권 2장이 오갔다. 이로써 키움은 올해 열리는 2025시즌 신인드래프트에서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총 6차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리그 최하위에 그친 키움은 순위 역순이라는 규정에 따라 1라운드부터 11라운드까지 모두 가장 먼저 선수를 뽑는다. /연합뉴스

'관록' 레알 이냐... '낭만' 도르트문트냐

내달 2일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가 올 시즌 유럽 프로축구 최강팀을 가리는 운명의 한판 대결을 벌인다. 레알 마드리드와 도르트문트는 다음 달 2일 오전 4시(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3-2024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전에서 맞붙는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미 UCL 최다 우승팀(14회)이다. 최근 우승은 2021-2022시즌이다. 결승에서 리버풀(잉글랜드)을 1-0으로 꺾고 최후의 승자가 됐다. 올 시즌에도 레알 마드리드의 기세는 매섭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 38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진 경기는 한 번뿐이다. 29승 8무 1패를 거둔 레알 마드리드(승점 95)는 라이벌 바르셀로나(26승 7무 5패·승점 85)를 일찌감치 따돌리고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UCL에서 성적도 매우 뛰어나다. 6전 전승으

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레알 마드리드는 16강부터 시작된 토너먼트에서 각각 강호들을 차례로 만났다. 16강에서 라이프치히(독일)를 제친 레알 마드리드는 8강에서는 지난 시즌 3관왕의 주인공이자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를 눌렀다. 맨체스터 시티와의 승부차기에서 4-3으로 웃으면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 팀을 무너뜨렸다. '헬스 DNA'가 있다는 말까지 나온 레알 마드리드는 4강에서 김민재가 뛰는 독일 축구 명가 바이에른 뮌헨까지 따돌렸다. 반면 도르트문트가 마지막으로 UCL 결승에 진출한 건 11년 전이다. 2012-2013시즌 뮌헨에 1-2로 져 우승을 눈앞에서 놓친 도르트문트는 당시의 아픔을 털어내려 한다. 객관적 전력만 보면 도르트문트가 열세다. 도르트문트는 올 시즌 18승 9무 7패를 거둬 분데스리가 5위에 자리했다. 그러나 '단판 승부'로 펼쳐지는 UCL 결승전의 특성도 도르트문트로서는 해볼 만한 지점이다. /연합뉴스